

# 책 사냥꾼을 유혹하는 이국거리 '책의 집'

## 유럽의 빛나는 서적문화 일군 고서점의 주인들

이광주

서양사학자

고대 이집트 사람들은 '책의 집'을 '영혼의 치유장'이라 말했었다. 서적과 저작이 존재하는 (서적이란 놓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 '존재한다') 공간은 나에게 있어서 영혼이나 지(知)의 연금장(鍊金場)이기에 앞서서, 현실보다도 이미지의 세계에 기대어 나 자신을 길들였던 저 순진무구의 유년시절과 다름없이 지금도 일체의 일상성과 그 속셈으로부터 나를 방면해주는 바로 '놀이'의 세계이다.

천당이란 노동이 놀이로 변용되고 놀이가 또한 노동이 안겨주는 충족감까지 베푸는 세계라고 한다면 서적과 서적이 자리한 공간을 천당이라 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할 것이다. 식자우환이라고 하나, 문자와 서적의 우주는 그 무엇에 앞서서도 우리들을 도연히 취하게 한다.

### '책의 집'을 찾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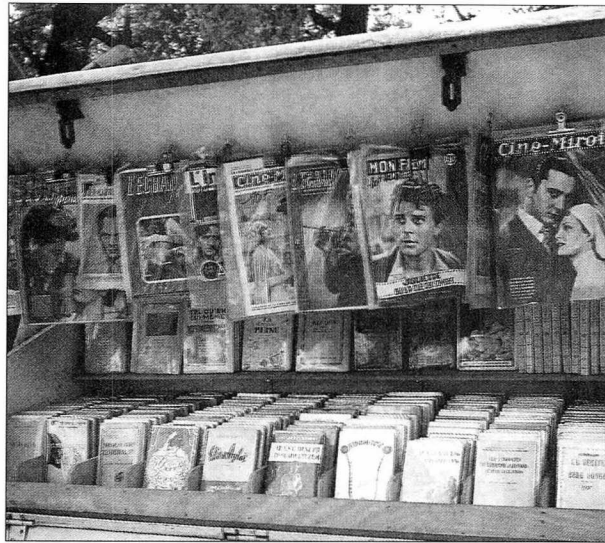
'책의 집'은 극장이나 미술관처럼 현실세계로부터 차단되고 구별된, 그러므로 그만큼 우리가 자유인이 되는 자기완결적 공간이다. 사실 책을 읽을 때 우리는 언제나 자유롭다. 독서인이란 자유인이다.

옛 오리엔트의 어느 현자는 "서적은 태어나면서부터 성숙하다"고 말했다. 극장에서 가서 실망하는 일은 있어도 좋은 책방에서 그러한 일은 없다. 좋은 책방이란 좋은 책으로 가득차 벽간 선택과 기대감으로 찾아드는 책의 집을 말한다.

거기에는, 책들이 저마다 표정을 지니듯, 텍스트마다 제각기 발산하는 말과 기호, 상징과 은유가 타는 선율과 울동의 파장이 충만되어 있다. 나는 책의 방문객이 북적거리는 풍경을 좋아한다.

책의 집을 찾을 때 나는 대체로 혼자이다. 술은 대작(對酌)이 좋고 극장에서는 동반자의 존재가 더욱 흥을 돋구지만 책의 집은 미술관에서와 마찬가지로 혼자가 좋다. 그리고 설사 지면(知面)과 마주치더라도 외면하는 것이 좋을 듯싶다. 텍스트와의 은밀한 대화를 방해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나는 책의 집에서만은 학생시절부터 부자 행세를 한다. 필요하다고 여기거나 갖고 싶은 책은 어떻게든 나의 소유로 만드는 욕심 많은, 위험한 버릇을 지녔다. 지적



아미추어를 영영 벗어나지 못할 나는 비교적 폭넓게 책을 탐내는 서적 사냥꾼이기도 하다.

애서가들을 닮아 책이란 읽어야 할 텍스트이기에 앞서 그 자체 '오브제'로서 존재하는 것, 있어서 좋은 것이다. 읽지는 못하리라 여기면서도 사들일 때가 종종 없지 않다. 책을 찾아내는 데 아주 부지런하고 인내심 강한, 그리고 또 예민한 후각을 지닌 이를 '서적 사냥꾼'이라고 한다면 나도 그 말석이나마 차지하리라.

그러나 나는 진정한 의미의 '서적 사냥꾼'도, 애서기도, 더욱이 장서기도 못된다. 그저 책과 '책의 집'이 좋아서 그리고 필요한 문헌을 찾아 자주 서점에 들를 뿐이다. 설레는 기대감으로 찾아갈 고서점이라고 한집도 없고, 출입하는 서점이라고 K문고와 E서점 정도밖에 없는 서울은 나에게 있어 그저 삭막한 거대 도시일 뿐이다. 그리하여 나는 오래전부터 나를 유혹하는 '포도밭 책의 집'을 이국 거리에서 찾는다.

### 즐거운 포도밭 서점 순례

30년 전 서독행 여권을 받은 날 가벼운 흥분 속에서 잠을 이루지 못한 나의 뇌리를 오간 것은 아직 보지 못한 그곳 서점들이었다.

지금도 이국 땅 나그네 길에 오르면 이제는 친숙해진 여러 도시의 몇몇 신간 서점과 고서점을 탐방하는 데 정성을 다한다. 런던에 들르면 유럽 최대의



· 20세기 초 벨 에포크 시기 세느 강변의 노점 서적상(왼쪽). · 근세 초기 서민을 상대로 대중본을 팔았던 서적 행상인.

서점으로 꼽히는 포일즈와 딜론즈 그리고 차랑 크로스가(街)의 고서점들, 케임브리지에서는 대학 출판부 서점, 동경 같으면 이와나미(岩波) 서점과 기노쿠니야(紀伊國屋) 서점에 더하여 간다(紳田)의 고분옥들, 그것들이 나를 취하게 만드는 단골 포도밭이다. 그리고 열흘간 체류한 시카고에서 꼭 5일 동안 매일 출근하다시피 오전 11시에 들러 오후 5시까지 시간을 보냈던 거대 서점 보더즈(책을 뒤지다가 3층 한쪽 구석에 있는 라운지에서 맥주나 홍차를 빵과 같이 들곤 하였다)도 잊을 수 없다.

유럽의 도시 광장이나 대학가에서는 많은 고서점과 더불어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노점 고서상들과 심심치 않게 마주친다. 지난해 여름 찾아간 베를린 훔볼트대학의 정문 앞 노점에서는 신간과 다름없고, 컬러 사진이 풍성하게 수록된 대학사 관련 호화판 서적과, 1985년에 동독에서 간행된 여우 말레네 디트리히의

자서전을 헐값에 구입하는 행운을 만났다.

동서를 가리지 않고 거리를 누비며 민중본을 팔았던 서적 행상이 유럽에 등장한 18세기 계몽시대와 때를 같이하여 노점 고서상 또한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거리 여기저기에 나타났다. 파리 세느 강변의 고서 노점상은 예부터 파리의 명물로 꼽혀 왔다.

그런데 30년 전 처음으로 파리에 들렀을 때 노트르담 대성당에 이어 찾은, 소년 때부터 동경하였던 그 명물 고서 노점들의 판매대는 온통 거리의 3류 화가들의 불품없는 화첩이나 포르노류의 잠동사니로 매꾸어져 있었다.

80여 노점이 늘어서 애서가들을 불렀고, 도시 계획에 의해 철거될 뻔하였을 때에는 프랑스의 저명한 지식인들이 구명운동에 나섰다. 20세기 초에는 그들의 전성기였을까.

어떻든 그뒤에도 한두번 들른 그 노점상들의 모양새는, 소르본느의 노교수가

어려울 때일수록

# 생각나는 친구

호황이라고 특별히 잘 나가는 것도 아니면서  
불황의 그림자는 출판계에만  
늘 질게 드리워집니다.

이렇게 어렵고 답답할 때일수록  
좀더 효율적인 전문 인력으로서  
저희가 큰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저희 '삼연'은 단행본의 레이아웃과 교정에서부터  
잡지, 아동물, 카탈로그 등 디자인 개념이 요구되는  
각종 출판물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서 일괄 작업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인력과 설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10년 가까이 쌓아 온 경험과 노하우도 만만치 않다고 자부합니다.



**三現編輯室** SINCE 1989

137-030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26-15(우림빌딩 5층)  
전 화 : 549-6883~5 팩 스 : 549-6877  
천리안 ID : SAMYEUN

망토 속의 큰 포켓(이 포켓은 19세기의 문인이며 유명한 장서가인 샤를 노디에가 고서 사냥을 위해 고안해 낸 것으로 많은 애서가들이 즐겨 이용한 것이었다)에 책을 슬쩍 넣다가 발각된 사건이 파리지엔의 화제가 될 만큼 노점상들의 좋은 시절(벨 에포크)과는 너무도 대조됐다. 장려한 노트르담 대성당을 가까이 조망할 수 있는 세느강변 천하일품의 풍경이 무색할 정도로 영락한 노점상들의 광경을, 자랑스러운 파리는 언제까지 못본 채 방치만 할 것인지.

### 고서점과 고서목록

고대 아테네에 이미 서점이 존재하였듯이 유럽 서점의 역사는 아마도 책의 그것에 비길 만큼 장구하리라 짐작된다.

서점의 모습을 묘사한 가장 오래된 도록으로 중세 후기 1350년경에 제작한 사본이 있다. 성인과 순례자가 만나는 사교의 장소이기도 한 그 서점 주인은 여성이었다. 잘 꾸며진 서점 내부의 모습은 그곳 고객들이 높은 신분임을 시사한다. 당시는 물론 구텐베르크의 시대에 이르도록 '책의 집' 고객이란 고위 성직자나 대학 교수, 그리고 애서가 또는 장서가를 자처하는 귀족 신분이었다.

특히 왕후 귀족들의 취향에 따라서 호화 장정된 <아름다운 서적>은 대개 1~2부만 제작되어 희귀본 중의 희귀본으로 오늘날까지 이른다.

19세기 초 독서계층의 태동과 더불어 서적은 이제 1천~2천부 인쇄되었으나 윌리엄 모리스에서 볼 수 있듯이 사가(私家)인쇄공방이 중심이 되어 소수 애서가-장서가를 위한 호화 한정본이 여전히 제작되었음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유럽의 신간 서점에서조차 자주 초호화판 미술서적 등을 발견, 경탄해마지 않거니와 중세 이래 오늘날까지 면면히 이어지고 있는 호화본, 희귀본을 호시탐탐하는 애서가-장서가들의 집념이야말로 유럽의 서적문화, 장서문화를 화려하게 발전시킨 원천이 아니었던가.

<아름다운 서적>의 산실인 파리는 또한 전세계 장서가들에게 유혹의 땅이기도 하다.

뜻밖에 좁은 뒷골목에서도 꼭 왕후의 서재같은 고서점과 마주쳐 당황한 때가 한두번이 아니었지만 매일 찾아다녀도 1년 안에 다 보지 못한다는 파리의 고서점은 얼마나 될까.

동서를 가리지 않고 고서점은 골동품점과 마찬가지로 '양가심장(良賈深藏)', 좋은 서점은 단골 손님만 출입의 특권을 누리는 별실을 비장하게 마련이다. 그리고 거래는 대개 특정 회원에게만 배부되는 자가(自家) 목록을 통해 이루어진다.

그 목록에는 저자명·서명·출판년도, 출판한 곳, 출판사명은 물론 페이지 수, 도판 수, 판형, 책의 보존 상태가 명확하게 기재된다. 그리고 좋은 서적에 대해서는 서지(書誌)의 기재 번호, 목록 제작자의 소견까지도 첨부된다.

서적의 출판 목록은 프랑크푸르트의 서적 건본시장(Buch-messe)에서 1470년 경부터 배포됐는데, 고서 목록은 17세기 말부터 시작된 서적 경매 이전에 만들어지고 범유럽적으로 고서점들간에 혹은 애서가-장서가들 사이에서 소중하게 교환되었다.

전문서지로도 통용되는 유서 깊은 고서점 발행 목록에는 책임 편집자인 전문학자의 이름과 함께 그 발행인인 고서점 주인의 이름도 명기한다.

이미 16세기 르네상스시대 유럽의 여러 도시에서는 휴머니스트들이 적잖이 출판-서점을 경영하였으며, 그곳에서는 에라스무스를 비롯한 당대의 뛰어난 학식자들도 문화의 교정계로서 일을 도왔다. 학문의 여왕으로서 문헌비판학이 융성한 것도 그러한 학장(學長)들의 뒷받침에 의해 이루어졌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오늘날 유서 깊은 고서점의 주인은 바로 르네상스시대 학장들의 후예이며, 그 자신 학식 있는 제1급의 애서가·장서가이다. 그럼으로써 권위를 자랑하는 고서 목록을 세상에 내놓을 수 있었던 그들이야말로 유럽에서 빛나는 서적문화의 정수를 이루는 장서문화의 진정한 창조자(定義者)라 할 것이다. ❖